

농업명품도 충북 브랜드 축산물 축제 개최



충북 브랜드 축산물 축제 개막식 현장



정은희 충북도지사가 (주)모란 식품의 오리제품을 시식하고 있다



(주) 모란식품 부스 전경

충북의 브랜드 축산물이 한 자리에 모였다.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이종환)와 충북도는 지난 13일(토)부터 14일(일)까지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 광장에서 '농업명품도 충북 브랜드 축산물 축제'를 개최했다.

'맛! 건강! 가득담긴 정성! 직접 느껴보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소·돼지·닭고기 등 충북브랜드 축산물 19개 품목과 한우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한우를 비롯해 등급판정제·쇠고기이력제 시스템, 깨끗한 목장 사진 등이 전시됐다. 전시된 축산물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과 안전성은 기본이고, 브랜드 축산물 고유의 맛과 풍미를 갖춘 명품이다.

부대행사로는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이용한 무항생제축산물 요리경연대회가 시·군별로 향토음식부문, 명품요리부문, 단체급식부문에 총 3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축산물 시식행사와 함께 브랜드 축산물 할인판매행사,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제공, 주부가수향선발대회, 축산골든벨, 비보이댄스공연, 축산사랑×퀴즈 등 즐길거리도 많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직접 맛보고 느끼며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본회 회원사인 충북 음성의 (주)모란식품도 참관, 지난해 새로이 런칭한 셀덕 제품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다.

(주)모란식품은 셀레늄을 먹여 항산화력이 우수한 기능성 오리, 셀덕을 가공해 만든 수제소시지, 너비아니, 양념불고기, 훈제, 로스 등 신선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불러 모았다.

(주)모란식품의 한 관계자는 "충북에 기반을 둔 업체의 한 곳으로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